



## 보도자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www.unglobalcompact.kr)

홍보담당 이은경(02-749-2150, 010-8585-0215, ungckorea@gmail.com)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반부패 심포지움 개최”

### Symposium on “UN Global Compact Anti-corruption Principle”

일시: 2010.5.12(수) 9:00-5:20

장소: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51층)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후원: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및 일반 관심자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반부패 심포지움을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및 일반 관심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5월 12일 오전 9시 부터 5시20분까지,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함. 금번 심포지움은 국민권익위원회 후원으로 열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07년 설립된 후, 지난 3년간 반부패 심포지움을 매년 개최해왔음. 금번 심포지움도 한국사회내 잔존한 부패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업 차원의 부패 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기획됨.
-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4대 원칙 중 반부패 문제를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음. 반부패 문화는 기업들의 진정한 지속 성장과 사회 책임 추진을 위한 바탕이자 근간이기 때문임. 따라서, 우리협회는 반부패 관련 세계 동향을 수시로 소개 하고, 국내외 우수 기업 사례를 발굴해 발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에게 윤리 경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경영을 해나가도록 돕고 있음.



- 금번 회의의 오전 세션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승한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의 축사, 권익위 곽형석 청렴총괄과장이 나와 2010년도 정부의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함. 이어 한국투명성 기구 김거성 회장이 2009 UNCAC 회의 설명과 전망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이 UNGC 반부패 원칙 및 국제동향을 발표함. 국내 기업의 반부패 추진 현황 및 내부자 고발자 제도에 대한 설명도 있음.
  
- 오후세션에는 유럽상공회의소, Intel, GE, Siemens 같은 다국적 기업 및 한전, 안철수 연구소 등 국내 기업들의 투명경영의 사례 및 성과를 발표하고, 각 기업내의 윤리규범과 반부패 경영시스템을 설명함. 또한 정부 및 학계, 언론의 패널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 반부패와 기업의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임.
  
- 유엔글로벌콤팩트 반부패 원칙의 근거 조약이기도한 유엔반부패협약(UNCAC,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은 2003년 12월 9일 100여 개 국가의 서명과 비준으로, 2005년부터 국제법으로 발효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반부패 국제법으로, 민간기업의 부패도 강하게 다루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2월 29일 국회에서 비준되어, 108번째 비준국으로 협약을 이행하고 강화할 의무를 갖게 되었음.
  
- 그러나 2008년 12월 9일 ‘유엔 반부패의 날’ 세계적 국제 반부패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 (본부: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2008년 뇌물공여지수(BPI; Bribe Payers Index)’에서 한국은 22개국 가운데 남아프리카, 대만과 함께 공동 14위를 차지하였음.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국제적 평판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음.
  
- 지난해 11월 발표된 2009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5점으로 지난 해에 비해 0.1점 하락하였고, 이는 세계 180개국 중 브루나이, 오만 등과 공동 39위에 머무는 점수임.

- 이제 우리국민은 기업이 반부패 드라이브를 끌고 나갈 중요한 주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가 개최하는 금번 심포지움은 한국사회의 부패문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 국제사회내 부패지수 평가 개선 등 한국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유엔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는 2007년 9월 17일 창립총회를 한 후,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고, 체계적인 조직 및 투명한 운영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네트워크가 되었음. 현재는 177개 기업 및 단체가 유엔글로벌컴팩트 회원사로 가입하여 활발하게 참여하며, 기업사회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국협회는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4번째로 큰 네트워크가 되었음.
- 유엔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2년 반의 시간동안, 회원사들에게 유엔글로벌컴팩트의 4대 이슈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주제와 유엔개발목표(MDGs) 등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세계적 동향을 알리고, 기업과 사회의 인식을 높이며 지속가능보고서(COP) 작성을 돕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경제, 시민 단체 관계자들과의 정기적인 운영위원회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로써 국내 기업사회책임(CSR) 무브먼트의 활성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올해는 유엔글로벌컴팩트가 창립 10주년을 맞는 해로서, 본부 및 세계네트워크 차원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음. 6월 23-25일에는 3년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의장으로 하여 개최되는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회의가 뉴욕에서 개최됨. “Building a New Era of Sustainability”라는 주제 아래



진행될 이번 회의에는 전세계의 비즈니스, 정부, 학계, 시민단체 영역의 1500 명의 오피니언 리더가 초청되어, UNGC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시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모델을 이끌어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 대표들 역시 동회의에 상당수 참여할 예정입니다.

- 한국 사회 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주류가치가 될 때까지 한국협회는 계속 노력할 것이며, 금번 반부패 심포지움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함.

\* 유엔글로벌콤팩트 소개

2000년 UN본부에서 창설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현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주요 아젠다로서, 기업들이 UN기구, 정부, 노동,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10대 원칙을 실현하는데에 초점을 두고 있음. 유엔은 이와 같이 세계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하여 세계화의 여러 문제에 국제 사회가 공동대처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음.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시민(corporate citizenship) 이니셔티브로서, 7,700여 회원이 가입(그 중 5,200여개 기업) 및 80여개의 국별 네트워크가 활동하고 있음. 한국에서도 177개 회원이 참여중이며, 2007년 9월 17일에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설립되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133개의 기업 및 단체가 한국협회에 가입하여 뜻을 같이하고 있음. 한국협회는 한국 사회 내 지속 가능하고, 책임있는 기업경영 및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첨부

1. 반부패 심포지움 순서